



스스로 뒤돌아보게 하는 낮은 목소리

가수 안치환이 뽑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뒤돌아보면 우리가 참 각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노라면 한없이 평화로워져요. 모든 것에 대해 너그러워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내가 만일〉의 가수 안치환씨(34)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이석태 옮김, 보리)였다. 황토색 표지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

“2년 전 아내의 권유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뻣뻣한 일상 속에서 각박하게 살다보면 가끔 모든 것을 떠나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책은 자연주의적 삶, 올바른 인간다운 삶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평화와 안식을 느꼈어요. 저도 나이 들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집도 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더군요.”

그는 주로 공연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책을 읽는다. 물리적 시간보다는 정신적 여유가 없어 욕심처럼 책 읽는 것이 쉽지 않다. 시집과 소설 그리고 《인물과 사상》·《한겨레 21》 등의 잡지를 관심 있게 읽는 편이다. 최민식의 사진 에세이집 《종이거울 속의 슬픈 얼굴》(한양출판)도 자주 펼쳐보는 책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1년 반만에 여섯번째 음반 〈I still believe〉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사랑하게 되면〉을 비롯, 〈어머니 전상서〉·〈돌맹이 하나〉 등 서정적이면서 단아한 포크 스타일의 노래들이 주조음이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는 곡들입니다. 자기성찰적인 노래지요, 톤이 낮으면서 잔잔하고 깊게 흐르는 음악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는 많은 시를 노래의 재료로 삼았다. 운율이 살아 있고 스스로 표현하지 못한 감성을 시로 대신한다. 삶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낮설게 하거나 김남주의 시처럼 명확한 이슈를 드러내는 시들이 노래가 됐다. 앞으로 그가 부르고 싶은 것은 삶에 뿌리내린 건강한 서정과 비판을 담은 노래다.

“항상 우리들 삶의 근거와 유리되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상업적 기획이 아니라 제하고 싶은 이야기를 순수하게 노래할 겁니다. 가수이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 느끼는 생각을 담아야지요. 나아가 막강한 권력을 누리면서도 썩은 언론을 공격하는 노래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음반에 담긴 노래를 사람들의 가슴에 심느라 거의 쉴 틈이 없다. 지난 4일에는 울산에서 청중과 만났고 오는 11일에는 익산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번 음반의 제목처럼 그는 ‘여전히 믿는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 박천홍 기자

한국출판유통(株) 전문서적 구매담당 주용운(周龍雲)과 인연을 맺었던 출판 관련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95년 3월 9일 입사이래 도.도매:출판사
직접 구매:대형서점 방문구매 등을 통해
비록 비즈니스라는 동기로 출발하긴 하였으나,
이제는 한국출판유통(株)가 갖는 상징성
그리고 주용운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구매, 공급의 특색 있는 상품 조달패턴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귀중한 지면이 너무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송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껏 맡아왔던 일들에 대한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자 그리고 주용운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판사·부설출판부 및 서점·총판점 제위〉

납품·전문서적 구매담당 주용운을 통해
거래관계를 맺어 오시면서 상품 및 대금
관련으로 단 1원, 단 1원이라도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역을 재삼
확인하셔서 속히 아래의 주소지 및
전화, 전송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우편번호 : 110-480
- 주 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175-15
(종보B/D302호) 출판영업인
협의회내 한국출판유통(주)
동대문사무실
- 수 취 인 : 주 용 운
- 전화번호 : 02)3673-3664
- 팩스번호 : 02)744-7216
- 휴대전화 : 011)232-6808

지금 저의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관계로,
가능한 한 9월 말일까지는 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맺으면서, 다시 한번 한국출판유통(株)
그리고 주용운이라는 개인에 대하여
관심과 인간적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비록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周龍雲 속대 —